



대전주보

발행 김중수(제2656호)
 편집 천주교대전교구 홍보국
 E-mail tjubo@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djcatholic.or.kr



유근영 루카(대전가톨릭미술가회)
 대림 시기 첫째 주일
 57x80cm, oil on canvas, 2021

대림 제1주일 2021년 11월 28일(다해)

제1독서 예레 33,14-16

화답송

◎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제2독서 1테살 3,12-4,2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복음 루카 21,25-28.34-36

영성체송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2021년 유네스코 세계기념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백신 나눔 운동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아 펼쳐졌던
 “백신 나눔 운동”을 마감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에 감사드리며
 결과에 대한 보고는 주보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신의 완성을
 ‘나눔’입니다



한끼100원나눔운동
 2021년 사랑의 온도현황

66.2℃

2021년 총 모금액
 662,713,169원

[11.12~21 모금액] 5,765,660원
 본당 3,094,760원 / 단체 및 개인 2,670,900원

11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보편 지향>

우울증이나 과로로 지쳐 고통받는 사람들이 새 삶을 열어 가는 데에 필요한 도움과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겸손한 기다림의 때



황선영 라우렌시오
조치원 주임

새로운 한 해는 잘 시작하셨는지요? 한 해 동안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나 세상보다 빠르게 한 해를 시작합니다. 덕분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총 3번의 새해 인사를 건넵니다. 대림 시기와 신정, 그리고 구정에 말입니다. 교회에서 '3'이란 숫자는 완성과 완전함을 뜻하며, 또 삼위일체 하느님을 상징하기에 하느님의 세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미사 중에 “거룩하시도다”를 3번 반복하는 것도 하느님이 가장 거룩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3’이란 숫자가 갖는 완전함의 의미처럼, 앞으로 우리가 나눌 새해 인사 역시 3번의 반복을 통해 서로를 위한 가장 완전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어떤 다짐들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보통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난 한 해의 다짐을 되짚어보고 잘한 것은 무엇인지, 또 부족했던 것은 무엇인지 성찰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 해는 어떻게 살아갈지 새로운 다짐을 세워보곤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성찰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돌아보아야 할지 축일을 통해 알려주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기억하였던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통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찰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

는 것 같은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함은, 그와 동시에 과연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적은 없는지, 우리의 왕이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하느님께서 따라오시기를 바랐다면 이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성찰하고 회개하여 더욱 더 겸손해지기로 다짐해야 할 때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 시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십사리 교만해져 스스로를 들어 높이는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루카 21,36).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언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힘은 겸손뿐이며, 겸손해지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느님께 드리는 시간이지만, 우리의 이야기만 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도는 하느님의 업적을 찬양하는 가운데 겸손해지는 시간이며, 그리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일치시키는 시간입니다. 기도 안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만이 다시 오실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끝내고, 기다림의 시기로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조차 주도권은 모두 하느님께 있음을,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하느님 앞에서 겸손해야만 하는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일상에 이미 가득찬 하느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것만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941)
유판식 토마스





꿈과 희망을 지닌, 생명운동에 동참합시다!

종종 교우분들이 하시는 9일, 40일, 100일 기도와 같이 최근에 저도 많은 지향 속에서 기도하곤 합니다. 그 지향들에는 항상 참 행복을 주신 주님께 대한 우리의 희망을 담아내곤 합니다. 그 언젠가 기도했던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마침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모습을 꿈꾸며 말이지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나의 지향이 마침내 이뤄진 모습을 꿈꾸는 것만으로도 오늘이 참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지난 몇 달 동안 마음 한 구석에 저만의 행복을 담아 두고 기도했습니다.

지난 8월 10일부터 수험생들을 위해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수험생들이 그 어떤 날보다 수고한 보람을 만끽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가족과 주변분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충만히 받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기도를 대학생인 자신의 모습을 꿈꾸는, 대학 졸업으로 사회인이 된 자신을, 열심히 온 마음과 몸으로 자신의 일과 배우자를 사랑하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로 바뀌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매일 서울 홍대입구역 3번 출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국제적인 기도캠페인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가 막을 내렸습니다. 비록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제 자리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배 속에 있는 모든 태아가 마침내 세상 밖에 나와 어미의 품에서 많은 이들에게 삶의 그 어떤 고단함도 치유할 수 있는 미소로 희망을 주는 꿈을 꿉니다.

지난 10월 24일(전교 주일)부터 중고등부 주일학교 아이들이 선교활동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저 받기만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줄 줄 아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며, 친구를 위해 기도해줄 줄 아는 아이들이 올해 성탄은 자신의 친구와 함께하고 있을, 작년보다 덜 쓸쓸한 기쁜 성탄이 되길 꿈꿉니다.

지난 11월 1일(모든 성인 대축일)부터 8일 간 위령기도를 바쳤습니다. 매 기도를 바치며 본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함께 웃으며 지금 이곳에서 살아 연습하는 그 나라의 삶을 마침내 살아내시길 꿈꿉니다. 함께 만나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요.

매일 잠자는 시간에 꾸는 꿈이 아닌,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며 꿈을 꿉니다. 세상 많은 사람이 어디서든지 하느님께서 주신 한 생명을 살아내는 모습을 꿈꿉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생명이라도 시작부터 마침까지 이 세상에서 맘껏 살아 숨쉬길 기도합니다.

생명운동에도 기도는 항상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꿈을 꾸지 않는 것이요, 생명의 희망을 지니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운동에 동참하시려 한다면 지금부터 함께 한 생명을 위해서, 한 생명이 지닌 희망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영일 야고보 신부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대전교구 담당

연중 제33주일(11월 14일) 사이트길 원고 정정 대전가톨릭민족화해위원회 → 대전교구 민족화해위원회 / 골룽골 → 골령골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46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태환경위원회

대전교구 대전교구

대림 제1주일 주간실천

전자제품들도 하루는 쉬게 합니다.

www.djeco.or.kr

검색창에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검색



작품명 척.사.윤희 (斥.邪.綸.音) (부제: 빛이 되다)

재료 유리

크기 100 X 100 X 430cm

제작년도 2019

척사윤희(斥邪綸音)

1839년 조선의 왕 헌종은 백성들에게 사악한 道인 천주교를 물리칠 것을 훈유한다.
왕의 가르침이 곧 하늘의 명이던 시절, 이를 따르지 않는 별은 가혹했다. 죽음이었다.
단 한 명의 사제도 없는 척박한 조선 땅에 천주교가 뿌리내릴 수 있었던 힘은 왕이 내린
척사윤희의 명에 항거하며 믿음을 생명으로 지켜낸 이 땅의 민초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순교, 빛이 되다(Martyrdom, Become a light)

이름 없이 죽어간 이 땅의 수많은 민초들. 그들의 죽음은 과거도 끝도 아니다.
순교의 역사는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에게 기억되어야 하며 미래에도 이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순교의 역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빛의 역사로 부활되어야 한다.

빛의 기둥을 잇다(Concent the pillars of light)

기억 속에 살아있다면 죽음조차 영원하다. 예수님의 생애, 순교자들의 역사.
이 모든 하늘의 시간들을 빛의 기둥으로 형상화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기억 속으로 연장시켰다.
또한 처절한 고통을 신앙으로 지켜낸 순교자들의 눈물을 닦은 영롱한 빛의 기둥이
부디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생명을 비추는 영원한 신앙의 기둥이 되길 소망한다.

손승희(손소벽 막달레나) 유리화 작가



유근영 루카(대전가톨릭미술가회)

「대림 시기 첫째 주일」

57x80cm, oil on canvas, 2021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을 묵상하며 마지막 날에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 시기'입니다.

마음에 초 하나 밝히고 길을 나설 때입니다. 그 옛날 동방박사들이 그러하였듯이 저 높은 곳에서 찬란히 빛나는 별이 온갖 소음과 먼지, 차별과 죽음의 바이러스로 둘러싸인 우리의 삶을 보이지 않게 이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한 해의 마지막과 한 해의 시작을 관통하는 대림 시기!

우리는 별을 바라보며 사랑스런 구세주를 만나러 가는 축복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희미해진 별빛을 새롭게 밝히고, 우리 죄로 상처투성이가 된 '공동의 집'인 지구를 구유로 삼아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만나러 대림초 하나에 불 밝힙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로마에서 유학 중인 라성철 세례자요한 신부입니다. 이렇게 글을 통해서 교구 가족 모든 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늘 타지에서 지내고 있는 많은 사제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교구 모든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 받고 있는 많은 사랑을 한국에 돌아가서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로마 라테라노 대학교에서 사목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목신학은 많은 분에게 생소한 학문으로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사목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약 200여 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직 한국 교회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교회의 사목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면서, 사목신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목신학이 어떠한 학문인가를 간단히 말하자면, “교회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학문입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활동을 ‘사목’이라고 말하는데, 현대의 급변하는 사회,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며 교회가 복음화를 위해 무슨 활동을 해야 하고, 어떻게 모든 이와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지를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실천으로 옮기고자 하는 학문이 바로 사목신학입니다.

이러한 사목신학을 공부하며, 지금 이 시대, 특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과연 어떠한 사목을

해야 하는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책도 보고,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이야기도 나누며 답을 찾으려 많은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찾은 것은 교회의 사목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공감하고, 함께 걷고, 함께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셨다면 무엇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목을 비록 신학적으로, 이론으로 연구를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를 위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의 어려움과 아픔에 늘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함께 걸어가는 교회를 건설하기 위한 교회의 사목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의 백성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할수록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달으며,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느끼기 위해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은 힘든 시간도 있지만, 많은 분이 기도하고 응원해주심을 기억하며, 나중에 교구에 돌아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성철 세례자요한 신부 로마 유학

아뉴 스데이 글·그림 이순구(베네딕도)

첫 불을 밝힙니다.

무지함을 스스로 깨닫는
지혜를
넘치는 영욕을 스스로 떨치는
양심을
거짓을 스스로 고백하는
용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알립니다

교구알림

교구청 주방 도우미 채용 공고

- 자격 : 영세 3년 이상, 세종교구청사 출퇴근 가능자
- 서류 : 교적사본, 본당 신부 추천서, 이력서 지참
- 접수 : 12.3(금)까지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문의 : (044)270-3027~3031 교구청 관리국

전답사목

성체강복과 함께하는 기도회

- 때 : 12.2(목) 19:40 새얼센터
- 내용 : 성체강복, 말씀묵상, 미사 등
- 선착순 : 60명
- 문의 : (042)824-6771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성모신심미사

- 때 · 곳 : 매주 토 10:30 새얼센터
- 문의 : (042)824-6771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주님께 찬양을

- 찬양사도 : 아나뎀
- 때 : 12.1(수) 20:00 / 대상 : 누구나
- 곳 : 하품센터 (천안시 서북구 월봉5길 23)
- 문의 : (041)572-7179, hapum7179@daum.net

젊은이 온라인 방구석기도회

- 대상 : 성령기도회에 함께하고 싶은 모든 젊은이
- 때 : 11.30(화) 20:30 / ZOOM온라인
- 주최 : 아자리아 선교단
- 참여문의 : 카카오톡[아자리아플러스 친구, 인스타그램[azariah_2021]DM 문의

교구 내 기관 및 시설

가톨릭 복음 선교 교육

- 때 : 12.11(토) 09:30 ~ 12(주일) 16:20
- 곳 : 정하상교육회관
- 내용 : 쉬는교우찾기
- 문의 : 010-8848-5690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병설

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집

- 노인장기요양보험 1, 2, 3, 4, 5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에 방문 전문적인 요양관련 서비스 제공
- 문의 : (042)825-3182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입원 안내

- 천주교 대전교구 / '치매안심병동' 운영
- 신경과, 가정의학과, 외과, 한의과
- 성사생활 가능 / 간병인 상시 모집
- 문의 : (041)950-1008

대덕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모집

- 대상 : 대덕구, 유성구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가진 19세 이상~40세 이하 장애인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 이용절차 : 가입소 1주일 후 판정회의를 통한 서비스 이용 확정
- 이용료 : 월 15만원(식대포함)
- 문의 : 070-7858-2498

노인학대 상담 및 제보

- 곳 : 서구 둔산동 삼천교 네거리 부근
- 방법 : 내방, 방문 상담, www.dj1389.or.kr
- 문의 : 1577-1389, (042)472-1389 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

교구 외 기관 및 시설

나무조각 (성화, 상상) 관심있는 분

- 제 4차 모집, 21년 12월(수시접수)
- 곳 : 거룩한말씀 수녀원 교육관(목동)
- 한국가톨릭 목공예 충청지회
- 문의 : 010-3253-9349

가톨릭청소년회 대구청소년수련원

- 프로그램 : 홈토크! 화상영어수강생모집
- 대상 : 7세~성인 및 실버
- 수업 : 1:1 맞춤형, 기초회화, 여행 및 비즈니스 영어
- 문의 : (053)593-1273

국악성가 한발합창단 단원 모집

- 지휘 : 강수근 신부 직강
- 오디션 : 2022.1.11(화) 19:00
- 곳 : 용전동성당
- 문의 : 국악성가연구소총괄실장 010-2279-0255

교회 운동 및 인준단체

대전교구 소년소녀합창단 신규단원 모집

- 연습 : 매주 수 19:00~21:00, 대전가톨릭문화회관
- 대상 : 초3~중3 / 문의 : 010-2059-2610

파티마 세계사도직(벨) 첫토요일 신심미사

- 때 : 12.4(토) 시작기도 09:30, 미사 10:30
- 곳 : 주교좌 대흥동성당
- 문의 : 010-4939-8688

원죄 없으신 성모기사회 미사

- 때 : 매월 둘째주 토 09:20 칠락목주기도 10:00 미사
- 곳 : 주교좌 대흥동성당
- 문의 : 010-6408-6562

수도회 및 피정

예수수도회 메리워드 심리상담 센터

- 심리 상담(개인, 부부, 가족)
- 문의 : 010-5784-8585
- 모래놀이 치료(아동, 청소년, 성인)
- 문의 : 010-3488-6765
- 곳 : 예수수도회 교육센터(성모여고 내)

내적치유나 영적돌봄에 관심있는 분

- 2022년 봄학기 임상사목교육(CPE)프로그램
- 때 : 1.22~5.21-평일반 or 토요일반 / 선착순 모집
- 곳 : 섭리CPE센터(필요시 비대면수업 포함)
- 문의 : 010-8863-3637 천주섭리수녀회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 때 : 12.5(주일) 09:30
- 곳 : 서울본부(동소문로)
- 문의 : korvocation@columban.or.kr

성삼의 딸들 수녀회 성소 모임

- 때 : 언제나 문의
- 곳 : 담양군 대전면 대치1길 22-14
- 문의 : (061)382-2214, 010-4853-2114

한국의방선교회 성소 모임

- 대상 :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 문의 : 성소국장 010-8715-2846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 (히브리어, 희랍어)

- 기간 : 1~12월
- 1년 과정, zoom 수업, 3개월에 30만 원씩
- 시간 : 수 19:30~21:30
- 지도 및 문의 : 프란치스코회 김성태 신부 010-4598-6912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시간
- 대상 :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반장
- 때 : 2022.1.15~18, 1.22~24, 2.12~15, 2.20~22
- 문의 · 접수 : (02)773-1455, (064)796-4182

젊은이 대림피정

- 때 : 12.11(토)~12(주일) (1박 2일)
- 주제 : Be born in Me
- 대상 : 39세 이하 가톨릭 미혼여성
- 곳 : 원주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본원
- 문의 : 010-3679-7198 강피아수녀

연세내과 (365일 24시간 진료) 내과전문의 박준용(베드로) 둔산 타임월드 정문 앞 T. (042)485-8000	행복나눔 이사 사무실 이사, 포장 일반 이사 이종수(야고보) 김영숙(실비아) T. 1877-9924, 010-2575-2176	세종성모내과 내분비 질환 중점진료 당뇨병, 갑상선,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세종시 한누리대로 492 청안빌딩 4층(환경부 앞) T. (044)905-0606 원장 이광우 도미니교	이광우 치과 원장 이광우 타데오 타임월드 별관 2층 T. (042)483-7528, 489-7528	제주성지순례 3월/4월 12.10(금)~12월 12.13(월)~16(목) 22.01.03(월)~06(목), 01.07(금)~09(일)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www.michaeltour.co.kr
척추·관절 허리사랑병원 대표원장 : 김관태(바오로) 척추·관절 전문의 10인 진료 T. (042)528-7588 롯데백화점 옆	이바르게 치과교정과 치과 교정과전문의 홍성규(미카엘) 브라켓없는 3D 디지털투영교정 타임월드네거리 (042)482-3601	바로세움병원 척추·관절 집중치료(MRI 2대) 원장 : 김경환(요한), 김재원(필립보) 외 9인 협진 (042)489-8888 유성온천역 1번 출구 5분 거리	맑은눈 안과 라식, 라섹, 노안, 백내장 T. (042)476-0075 정부청사역 4번 출구	더 웰 피부과 박장규(안토니오) 김형주(방지거) 유성점 T. (042)825-3045 유성온천역 6번 출구
한국공간정리협회 (오마이홈) 신박한 집정리 전문 서비스 신진경 세실리아 T. 1522-4123	(주)광정평개발인 상담 감정평가(상속·증여·일반거래·담보·보상 등) 총무이사 이석환 그레고리오 T. (042)721-0097 / F. (042)721-0997	광고 모집 (042)257-0190	대전베스트정형외과 척추, 관절, 외상 전문 대표원장 양준영(가롤로) 전 충남의대 교수 T. (042)345-7700 유성구 병명동 604-1	에스티 피부과 (전 을지대 교수 / 현 충남의대 외래교수) 김윤동(사도요한) 롯데백화점 옆 T. (042)535-5800



2021년 부제·사제 서품식

- **부제 서품식** : 12월 7일(화) 10시 30분 • **사제 서품식** : 12월 8일(수) 10시 30분
- 장소 : 솔피성지 기억과 희망 성당
- 참석 대상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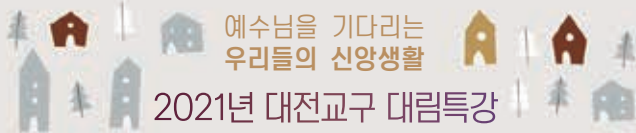
천주교 대전교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대림 제1주일 사랑의 나눔 2차 현금 유구성당을 위해



유구성당은 골짜기마다 순교자의 얼이 살아 숨쉬는 땅에 1968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은 거룩한 성전에도 새겨지게 되어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2018년 12월, 새 성전 건립(성전, 교육관, 사제관)을 위한 공동체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본당 공동체의 마음과는 달리 재정적 어려움이 뒤따라 왔고 외부기금과 인건이불을 판매하며 극복하려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이에 자모이신 교회(교구 공동체)의 애정 어린 도움을 청합니다. 저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정성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림 제1주일

방송일

1부 : 11.25(목), 2부 : 26(금), 종합본 : 27(토) 저녁 8시

강사 박진수 신부(온양 보좌)

주제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

대림 제2주일

방송일

1부 : 12.02(목), 2부 : 03(금), 종합본 : 04(토) 저녁 8시

강사 김경수 신부(도마동 보좌)

주제 우리 시대의 신앙인

Cantores(칸도레스)

대전교구사제중창단

매주 토요일 낮 12시 업데이트



모든 영상은 천주교 대전교구 유튜브채널을 통해 업데이트 됩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바랍니다.



김벨피부과병원 (기톨릭피부과) 국내 유일 피부과 2차병원 T. (042)471-7575	대형환경(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철거공사·순환 골재 및 토사생산) 계통, C 인건 T. (041)732-0620 대표 강희권 올리오	이안과병원 전문분야별 7인진료 T. (042)220-5500	베타니아 성물센터 헌배·목주반지, 전례복, 전례용품 월·금 09~18:00 / 토 14:00~18:00 국내외성물 T. (042)226-8980	대전해수욕장 요나성당&리조트 12인 콘도형 객실 / 4인 콘도형 객실 4인 호텔형 객실 / 2인 호텔형 객실 사제 전용 객실 - 전화 및 홈페이지 예약 - T. (041)934-7758, 010-3076-7489 yonaresort.co.kr / yonaresort.com
구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 우울증, 공황장애) 원장 구미량(헬레네) 롯데백화점 건너편 T. (042)532-7009	효안과 (전, 눈빛안과) 노안·백내장·라식·라섹 이호(바오로) T. (042)486-5050 둔산동 1110번지 8층 경성르마를 사거리	대전성모안과 원장·박인철(미카엘) Since 1998 (전)우리성모안과 원장 (전)눈빛안과 원장 롯데백화점 맞은편 T. (042)533-0078	플랜트 치과 손외수 대표원장, 양찬영(스테파노), 김명균(바오로) 원장 외 20명 의사 협진 T. (042)825-2275 유성 홀플러스 옆	
오브스톰-성심당 전시·오픈행사·파티케이팅링 회의다과·다과박스 T. (042)220-4112	옛맛숨-성심당 안목 있는 사돈의 선택 결혼답례품·결혼축하차량간식·이바지선물 T. (042)220-4188	주보에 상업 광고를 원하는 업체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42)257-019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나눔’ 기금 전달식

하나은행은 11월 19일(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나눔’ 기금 전달식을 교구청에서 가졌고 기금으로 1억원을 교구에 기탁하였다.

이날 전달식은 교구장 서리 김종수 주교와 한정현 주교, 하나은행 함영주 부회장, 이춘희 세종시장이 참여하였다.

은경축 축하미사와 축하식

11월 19일(금) 교구청에서 은경축을 맞이한 김성현, 박진용, 이용호 신부의 축하미사와 축하식을 했다.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TJB 특집 다큐멘터리 <김대건에게 길을 묻다>

방송일시 : 2021년 12월 3일(금) 저녁 6시 50분

2021 세계유네스코 기념인물로 선정된 조선 최초의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25년 26일의 짧은 생을 뜨겁게 살다 가신 그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탄생 200년이 지난 지금, 그가 우리에게 남긴 의미는 무엇인지 돌아본다.

금번 다큐멘터리는 프랑스 현지 촬영을 통해 한국 천주교 신앙의 뿌리가 된 ‘파리 외방전교회’를 직접 취재했으며, 프랑스에 파견 중인 대전교구 소속 신부님의 활동을 통해 달라진 한국 천주교의 위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사제 성소 감소의 위기 = 우리의 위기(15)

조용히 자라는 숲

‘참 저 자매, 저 형제 열심히’, ‘젊은 사람이 참 열심히네.’

이렇게 우리들은 신앙생활에 ‘열심’이란 단어를 언젠가부터 붙여 사용합니다. 그리고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열심한 신앙생활’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제 주관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대개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매일 미사에 나오고, 독서나 주송 또는 성가대와 같은 전례 봉사를 하고, 성경 필사도 한 번 정도는 하고, 묵주기도도 하루 20단 정도는 바치고, 신심 단체에도 하나 이상 참여하고 있고, 직책도 한두 가지 맡고 있고, 성당 큰 일(잔치, 대청소, 행사)이 있을 때 땀 흘려 봉사하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분명 참 좋고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하지만 좀 아픈 얘기일 수 있지만 ‘열심한 신앙생활’과 ‘참된 신앙생활’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열심한 신앙생활’과 그리스도와 참으로 만나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신앙생활, 내 존재가 그리스도를 통해 새 옷을 입고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신앙생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변화로 인해 우리 가족과 내 이웃들이 변화되는 신앙생활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려는 이유는 이런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도착한 줄 착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윤영중 필립보 신부 성소국장